

성경과 고대 제국 <제 2 편> (8/20/2012)

<B.C 1000 년>은 다윗의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황금기였다. 또 페니키아의 왕 히람도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고 서로가 우호적 관계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머문지 400 년간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에서 살던 여부스족이 겨우 다윗의 부하 600 명에 의해 하루아침에 성을 빼앗기고 만다.이후로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고 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옮겨다니던 법궤를 정해진 한 곳에 모셔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려는 결심한다. 당대에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성전 설계도와 건축자재들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오빌(인도)의 금 3 천달란트 (금 93 톤, 현재시가 43 조원) 와 순은 칠천 달란트를 성전건축 자금으로 남겨주었다. 또 다윗의 측근들도 오빌(인도)의 금 5 천달란트(현재시가 72 조원)와 순은 1 만달란트를 헌금한다. 즉 다윗 시대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시대였다. 이 금과 은을 운송한 민족이 페니키아인이다. 솔로몬 시대에 페니키아와 본격적인 국제무역이 있었다는 성경 기록들이 있다. 솔로몬 시대는 금들이 넘쳐났고 은들은 돌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솔로몬의 경비요원들은 큰 금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200 명이고, 작은 금방패가 300 명으로 도합 500 명이 금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뒤, 남유다의 부는 이집트가 가져가고, 북이스라엘이 부는 앗수르가 가져간다. 그 이후 바벨론이 이집트와 앗수르를 점령하면서 솔로몬의 부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는 페르시아로 넘어간다.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으로 불리운 근원이 솔로몬의 부였고, 그 이후 헬라와 로마제국으로 이어진다. 구약 1 천년 세월동안의 <돈의 흐름>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는 것은 본인만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조건이 맞아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나 할까. 한국으로 따지면 광개토왕과 장수왕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페니키아라는 걸출한 해상무역의 스타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은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고린도), 티베등 여러나라였다. 페니키아인들은 B.C 2000 년경부터 지중해 동쪽 레바논의 티루스 (두로)에 정착하면서 앞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건설하며 살았다. B.C. 1000 년부터 1000 년동안은 지중해를 호수 삼아 주변지역의 무역을 지배하다시피 했다. B.C. 1000 년경의 페니키아는 가장 번성할 때였는데, 이 당시 페니키아 왕 히람은 성경의 다윗과 솔로몬 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페니키아인은 역사상 가장 과감한 해상활동을 벌인 민족이며, 야간 항해와 원양항해를 처음 시도한 민족이기도 한다. 당시 세상 끝이라고 두려워 했던 헤라클레스의 기둥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오빌 (지금의 인도)까지 금을 위해 항해를 한 거침없는 민족이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아프리카, 잉글랜드까지 무역을 펼쳤으며, 대규모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식민지는 아프리카 튀니지인 고대의 카르타고이다. 한니발이 제 2 의 포에니 전쟁의 출발지로 삼았던 스페인도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다. 또한 대규모 국제교역을 위해 이집트 문자를 변형시켜 사용했으며, 이 문자는 고대 그리스로 유입되어 결국 알파벳으로 발전한다. 로마제국때 가정교사로 가장 선호하는 1 순위가 그리스인이고, 로마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니저 1 순위는 유대인이었다.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함)는 사울왕과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시대에는 아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

<정략 결혼> : 그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정략결혼이 빌미를 제공한다. 북이스라엘(10 개 지파)은 남유다 (2 개지파)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5 배이상 강하였고, 200 년간 7 번의 왕조가 바뀌고 19 명들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중 에서도 오므리 왕조를 연 오므리 왕 시대가 최고조다. 그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는 그의 아들 아합과 당시의 경제대국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결혼시킨다. 정략결혼은 솔로몬 왕 시절에도 왕성했다. 이세벨은 시집오면서 자기나라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린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 며느리가 집안에 잘못 들어온 것이다.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 한사람과 바엘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 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이다. 선제공격은 바알을 섬기는 450 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 명, 총 850 명이 온갖 종교행위를 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엘리야의 반격이 시작된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단과 주변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린다. 이세벨 공주는 죽는 날까지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렸고, 그녀의 딸 아달라를 남유다에 시집보내 그곳까지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다. 무서운 집념의 여자다.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건가.

<두로전쟁> : B.C.8 세기는 여로보암 2 세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기다. 이 당시 두로는 노예무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다. 더 나아가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까지 나타나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두로 스스로는 신이라 여기며 교만했다. B.C. 8 세기 아모스와 이사야, 그리고 B.C. 6 세기 예르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모두가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두로가 워낙 부자 나라였으므로 이를 믿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B.C. 4 세기 두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니 이것이 <두로전쟁>이다.